

일터에 세우는 교회 형성 및 그 사역의 성경적 본질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윤성준

드루대학교

메디슨, 뉴저지

2023년

Copyright@2023 by Sung Joon Yu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Church is the hope of this generation. Unlike our local church building, the true meaning of church is the gathering of true believers, people with faith in Christ. In other words, a true church can be rebuilt in our workplaces based on this scripture,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ohn 8:31-32). One day, you walk into the office of yours and kneel before your desk, lifting hands to God with praises saying, “Lord, I worship you!” Suddenly, your workplace is no longer just a place you work for money, but it becomes a sanctuary where you give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a God’s dwelling place.

Most members of society spend roughly two thirds of a lifetime at the workplace, immersed in worldly, work-related events, and away from the worship that God has called His people to do. People may refer ‘worship’ to the weekly Sunday service at the local church, but God is worthy of worship more than one Sunday a week. God is worthy of praise and worship all the time, including at the workplace where people collectively spend most of their lives. “Worship as the rhythm of our lives” can be biblically defined in the this paper and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the daily lifestyle, specifically in the workplace, will be further explored and defined throughout the course of this paper.

국문초록

일터에 세우는 교회 형성 및 그 사역의 성경적 본질 연구

윤성준

사역자, 뉴저지, 미국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의미는 건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 건물 안에도 있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안에서도 형성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낸다. 주일 3시간 남짓한 지역교회에서 보내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중 매우 작은 부분이다. 참된 의미의 교회는 우리가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 세워지는 것이 선데이 크리스찬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대의 소망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세울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목장의 사명은 결단코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 일터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재탄생하는가를 다루고, 그 과정에

어떻게 평신도가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목차

감사의 글 ----- viii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지역교회 제자훈련 ----- 1

 - 리더십 양육 ----- 3

 - 평신도 지도자 양육 ----- 5

II. 이론 ----- 8

 1. 평신도의 정체성: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 8

 - FROM SUNDAY CHURCH TO EVRYDAY CHURCH ----- 8

 2. 풍요 속에서 변질된 십자가의 삶 ----- 25

 - 거룩한 삶과 복음적인 삶 ----- 23

 3. 일터에서 야생 영성을 키운다 ----- 40

 - 우리의 열정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 ----- 40

 4. 전문직업을 선교본부로 전환하기 ----- 53

 - EVERYDAY CHURCH IN WORKPLACE ----- 53

III. 이론을 적용한 일터교회 ----- 60

 1. NYU 치대 성경공부 ----- 60

 2. SOMA 미션팀 ----- 63

 3. COME치과 일터교회 ----- 70

IV. 결론 ----- 77

 1. 해석 ----- 77

참고문헌	85
부록	88
사역현장기록	88

감사의 글

처음 개업을 한 치과가 한창을 잘 성장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옆 건물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내가 매일을 땀 흘리던 일터가 한순간 축밭이 되었다. 순간 처음 개업하는 날, 3살짜리 딸 아이와 아내와 동그란 원을 만들고 손을 서로 연결 잡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났다.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시든 망하게 하시든 이 기업이 하나님 쓰시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 그때 그 기도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통해 일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로 세워주셨다. 선교가 사업의 목적이 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말씀의 선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이 연구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 또한 나와 늘 동역해 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보영, 그리고 토끼 같은 예쁜 두 딸, 다애와 다정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한다.

그리고 평생 동역자, 최성민 선생님과 민정 자매님께 감사하고 함께 18년 동안 함께한 뉴저지 Korean Bible Study (KBS) 팀 모두들께 감사드린다. 그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 청년일 때의 우리가 어느덧 중년이 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연구를 순조롭게 시작과 끝으로 인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RE-CHURCH]의 새로운 교회 회복의 시야를 넓혀 주신

김영래 교수님,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깊이 머리를 핏게 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새로운 시야들로 현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을 보게 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이
세 분 모두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동안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윤달호... 그대는 나의 스승이요, 믿음의 선배요, 그리고 나의 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립고, 사랑합니다.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A. 지역 교회 제자훈련

교회 회복에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제자도의 회복이다. 본회퍼는 그의 저서, “The Cost of Discipleship(나를 따르라)” 에서 값싼 은혜란 우리 교회의 철전지원수다라 말하며,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진 은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값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과 같은 은혜요, 헐값으로 팔아 치우는 사죄요, 헐값으로 팔아 피우는 위로요, 헐값으로 팔아 치우는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는 상품처럼 손쉽게, 주저 없이 그리고 무한정 쏟아버릴 수 있는 은혜다. 값싼 은혜란 공짜로 주는 은혜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다.¹

제자의 삶은 곧 이 은혜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제자도의 모습은 사뭇 싸구려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지, 그런 개개인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¹ 디트리히본회퍼, *The Cost of Discipleship*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9

첫째로 내 안에 있는 값싼 은혜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닌, 대가를 치르는 값비싼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이 제자도가 회복될 것이다. 값비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 지신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매일 다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제자도의 최종 목표가 된다.

둘째로 이제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 리더 양성을 잘 받아, 그 지역 교회에서만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개인들이 속한 일터 현장에서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제자훈련을 통해 일터에서 제자들이 생기고, 이 제자들 2-3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일터에서의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일터가 교회(Para-Church)가 되고 나의 직장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목표가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말을 곁들여서 말이다.²

셋째로 참된 제자도의 회복은 ‘한 사람 제자’에 마음을 쏟아붓는 일이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동안 12명에게 집중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 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이 예수님의

² C.S. 루이스,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302.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곧 제자 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며 내 자녀들과 내 제자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 리더십 양육

따라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제자에게 예배와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러한 지역교회안에 있는 참 교회의 질서 있는 제도를 통해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비신자를 지역교회로 이끌어오는 일,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기 등이며, 간혹 평신도를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에서도 훈련받은 제자들을 지역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도록 하여 그 사역 범위의 한계를 한정한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의 저수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의 강이 되길 원하신다.”³ 즉, 참된 그리스도 제자의 사역지의 현장은 지역교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으로 복음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된다.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절반의 시간이 직장이기에 우리는 이 직장이라는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깨닫게 된다.

현장에서 십자가의 삶을 실현시키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³ J. D. Greear,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22), 64.

원칙은 평신도 사역의 생명은 건강한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디도서나 디모데전후서를 자세히 살펴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유심히 보면, 바로 개인의 가정에서 먼저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순종적인 자녀를 둔 자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모든 사역의 시작은 그의 가장 작은 교회 단위인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등장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가정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정의 단위로써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의 해답을 말씀 안에 나온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약의 대표 제자 바울 사도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셨으며, 베드로는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신 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서의 삶은 성경 속에서 자주 대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일 때, 도대체 어느 가정을 보고 나의 가정을 비추어 복음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성경에 유일하게 소개된 한 부부 사역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다. 한 가정의 가장된 우리는 이들의 도움을 얻어 한 가정이 어떻게 복음적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다.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다툼과 갈등이 심해지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는 추방령을 내리는데, 이때 추방된 사람 25,000명 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이때에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변화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와 로마 등지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범적인

크리스천 부부였다(롬 16:3-5). 이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3) 이 부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두 사람은 꼭 같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 꼭 마치 오늘날 말하는 잉꼬부부처럼 부부가 늘 함께 나온다. 그 사실 안에서 이 부부가 늘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을 구체적으로 한 것, 그들의 출신에 관한 자세한 기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대한 기록조차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다는 것과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이 두 부부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동역"이라는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나와 하나가 만나 둘이 아닌 다시 하나를 이루는 관계로 부르셨고, 또한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동역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C. 평신도 지도자 양육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 61:4).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의 황폐는 주전 8세기에 시작되고 최후의 일격은 주전 587년에 가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폐허된 예루살렘의 복구의 내용을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고대학자들은 이 말씀이 가르키는 장소를 실제로 무너져버린 지역의 의미인 예루살렘의 성전 복구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언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은 지역의 의미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만을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예수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재해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 본문의 말씀을 그때의 황폐되었던 역사 속의 예루살렘, 그 땅의 복구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위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사역 시대를 맞이하여 해야 할 사명을 이사야서의 본문은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부터 계속하여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많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회당 앞에서 “오늘날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언의 주체 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글이 오늘날 여러분 귀에 응하였습니다”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삶”이란 이사야서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처한 현장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십자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징한다. 어린 양을 대속물로 각을 떼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대속물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우리의 몸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어지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제 바로 이 부분 ‘어떻게(HOW)’ 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2장

이론

1. 평신도의 정체성: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FROM SUNDAY CHURCH TO EVRYDAY CHURCH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30대에 시작되었다. 요즘의 30대는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과 갓 결혼한 청년들로 이루어진 시기들이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란 예수님 시대의 30대 시기의 삶들은 어떠했을까? 신학연구자들에 따르면 당시 나이 30의 장남이면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설명한다. 아마 오늘날이나 그때나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이 30대가 아니었을까. 대부분 역시 이 시기에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책임의식으로, 더욱 독립된 모습으로 발전하며 많은 실질적인 꿈을 실행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고대나 현재나 다를 바 없는듯하다..

그렇다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은 30년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을 것을 분명하다. 또한 고통의 아픔과 겸손의 순종도 준비하셨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부활도 준비하셨을 것이다. 3년이라는 짧은 사역에 비해 열 배나 되는 3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의미는,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짧은 3년의 사역을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설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역의 첫 장을 여시며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제일 처음 사역의 장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이다. 예수님이 그분이 자란 곳 나사렛에 이르시고, 안식일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장면이 나온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건네주었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신 예수님은 책을 뒤적거리시더니 한 부분을 펼치시고, 곧 분명하고도 심오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위 선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만, 단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이며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선포라는 사실이다. 이 선언이 위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예언의 성취, 곧 이 메시아 예언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이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은 거의 600여 년을 기다렸다. 아니 구약시대를 포함한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라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지나긴 기다림이 아닐 수 없다. 전 인류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주인공이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첫 줄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시대의 사람들과 그 후 이사야서를 읽어온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질문해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600여 년 후에 오셔서,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것이다. “나야 나, 예수!” 라는 선포를 하신 셈이다.

그리고 위 말씀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그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이 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이사야서 두 본문을 나란히 놓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그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 61:1-3).

위의 두 본문 중,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나와 있는

‘그들’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 그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한다.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다’의 의미를 살펴본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예수 그리스도)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 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시다. 당시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본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단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에만 있던 이 ‘기름 붓다’는 의미는 처음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부음으로 시작된다. 그후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주어 왕의 계승을 임명한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성전에 왕위를 계승하여 성전 건축을 통해 메시아의 사상이 현저히 드러나게 된다. 신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가, 아님 ‘메시아’ 예수인가? 나다니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했다. 바로 예수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린양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증명되어 온 세상에 선포된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부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로 전달된다. 오늘날 교회는 이 메시아의 사상을 이어받게 된다. 지역교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도 이 메시아의 사상은 교회라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과 그에 맞는 품위를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이 기름부음을 받는 주인공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의 사역에 크게 사용될 목적이 있다는 의미이다. 마치 부음 받은 그 기름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임명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름부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

기름부음으로 임명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 어디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나(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사 61:1 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면, 복음은 영어로 ‘Gospel’인데, 이 단어는 ‘good+spel’이 합해진 말이다. 즉, good은 좋다는 말이고, spel이란 소식(news)이라는 말로, 복음은 그 뜻 자체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한복판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에 의아함이 생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친히 우리의 복음이 되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온갖 유혹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대신, 이러한 것들을 당당히 지배하는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되신다. 예수님께서서 본질 되시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 누구도 ‘죄인’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복음 역시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평신도의 정체성인 “그들”이 드디어 본문에 나타난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 61:3). 위 구절에서 ‘그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공들, 바로... 그들이 등장함을 목격한다.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 되심을 밝히고 그의 복음 되심으로 인하여 죄인 된 인생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의 시선을 그다음 역사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그들’은 본래 시온에서 슬퍼하던 자였다고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바로 죄로 인해 구원을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시온’이라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술한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화관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적인 표현이다. 이 구원의 화관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들에게 심기워진다고 본문은 말한다. 여기서 ‘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와 동일시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우리는 이 과정의 소의 ‘칭의’라고 부르는데, ‘심으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칭의의 역사를 강조한 것이다. 구원받는 자에게 심기워진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작은 씨앗에서부터 자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라 결국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듯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는 오늘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이 고백에 얼마나 많은 내려놓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하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닳도록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내가 죽어야 한다. 즉,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편안함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이 죽어져야 한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죽어야 함을 배워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어느새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인생에 줄자가 되어 개개인을 살피게끔 해준다. ‘나는 죽고 오로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에 순복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다.

앞서 해석한 말씀들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개개인의 인생 도안지에 무엇을 그려볼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려하셨듯, 우리의 인생 도안지는 ‘영원한 인생’ 위에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60~80년의 짧은 인생 여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여정을 놓고 설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인생도안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오로지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만, 우리는 영원한 인생에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다음 본문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평신도 사역 시대상’ 을 그려주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한다.

본문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그 종결을 찍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앞장에서 강조했던, ‘그들’ 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시에 신약에서는 같은 뜻으로 ‘평신도’ (laos)를 의미한다. 곧 평신도는 하나님 백성인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찾게 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 61:4).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의 황폐는 주전 8세기에 시작되고 최후의 일격은 주전 587년에 가해졌다고 한다. 이 폐허 된 예루살렘의 복구의 내용을 먼저 우리는 말씀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 복구를 말한다고 해석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거기서 해석이 머무를 순 없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첫 사역의 문을 여시며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위의 본문을 재조명, 재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위 본문의 말씀을 그때의 황폐되었던 역사 속의 예루살렘, 그 땅의 복구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함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0세의 나이인 예수그리스도의 첫 사역의 문을 여시면 그가 선포된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 성취로 말미암아, 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안에서 재해석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곧 평신도들이 오늘날 평신도 사역 시대를 맞이하여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본문은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부터 계속하여 오늘날까지도 평신도자 된 ‘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날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린다면, 예수님께서서 2000여 년 전 많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회당 앞에서 “오늘날 이 글이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언의 주체된 평신도 된 당신과 나역시 세상을 향하여 “이 글이 오늘날 여러분 귀에 응하였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평신도,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찾아본다. 먼저, 이 본문에는 세 가지 폐허 된 또는 망가진 부분이 거론되는데, (1) “오래 황폐하였던 곳” 이고; (2) “예로부터 무너진 곳” 이며; (3) 또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이 세 가지이다. 먼저 역사 속에서 말하는 폐허 된 예루살렘의 도움을 얻어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예루살렘의 주민은 대체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이요 성전 중심의 삶, 거룩의 삶, 예배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여기서 황폐된 곳은 곧,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진 자리,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사라진 곳, 거룩의 삶의 의미가 없어진 곳, 예배의 삶이 무너진 곳, 등등, 이렇듯 무너진 것들을 본문은 말씀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곳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라 말할 수 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곧 윤리와 도덕이 가장 잘 가르쳐져야 할 우리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뒤덮인 대학과 교육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학생들을 조롱한다. 기업은 돈을 벌고 확장하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뚜렷한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세속화와 정치화 되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곳, 다시 말해서, 작게는 한 개인의 인생이며, 가정과 관계성이며, 조금 더 크게는 한 개인이 속한 직장과 사회와 국가이다. 본문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예로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등 세 번이나 반복하여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회복하는 단계가

동사로 다르게 표현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1) 다시 쌓을 것이며 --> Rebuild; (2) 다시 일으킬 것이며 --> Restore/Raise-up; (3) 중수할 것이며 --> Renew/Repair; 해석자는 이 세 동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병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Rebuild), 일어난 개인에게 영향을 섭취,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Restore), 기력이 회복된 그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Renew). 다시 말해, ‘황폐한 곳’을 한 개인의 삶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는 나는 먼저 내 안에 교회(복음)를 세우고(Rebuild),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Restore). 그리고 그 개인을 새 창조(Renew) 하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요, 제자로서의 삶 또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만약 황폐된 곳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이라 평가된다면, 한 평신도는 그가 속한 직장에 교회를 세운다(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모임)고 본문을 해석/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양육됨으로, 영적으로 황폐되었던 직장이 새 창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이다. 더 나아가, 직장들이 바뀌면서, 도덕적으로 황폐되었던 한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것도 결국 평신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게 되는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곳이 나의 선교지, 무너진 성벽을 찾아 나의 소명을 향해 전진한다’ 라고 개개인에게 맞춰진 사역의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 평신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사 61:5-6).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평신도)은 ‘여호와와 제사장들’ 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여호와와 제사장들이란,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을 중수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나 셈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이 있는 모양 그대로 신약시대에 들어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다시 선포되고 확증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전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 정리하면, 황폐한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전을 모시는 사람에 걸맞게 맞추어 가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것이 이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님들이나 평신도들이 구약의 제사장직을 오늘날의 목회자들로 국한 지어 해석함으로 많은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말씀적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하나님의 봉사자’ 이다.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6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된 당신과 나는 우리의 인생을 전력투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 한다면, 그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한 번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야 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나로 나의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부족한 나의 짧은 인생, 연약한 저이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딤후2:20-21)는 이 본문 말씀 중,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미약한 한 개인을 그분의 도구로 써주실 수 있고, 또 써주신다는 확신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하찮은 하나의 만년필이라 할지라도 링컨 대통령이 쓰던 것이라면 그 가치를 값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겠다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버린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한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인생을 버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과 젊은 청년들도 그러했고, 자식들을 위해 불길에 뛰어든 부모들도 그러하다. 이들 어느 누구 하나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작은 인생이 쓰임 받는 사건인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평신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9절>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해 보자. 당장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가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 이 두 가지가 아닐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다. 더욱이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즉,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들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그들(비신자들이)이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며 인정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첫째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복받은 자손 됨을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곧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평신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되며, '그들이' 그분의 자손 됨, 복받은 자들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이상적인 교회상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교회상이 있는데, 이때의 '교회'는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이며, 이 교회는 우리가 항상 길가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를 붙인 건물들, 곧 지역 교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들 안에서나 밖에서 모이는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이

연구지에서는 ‘참교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와

‘지역교회’ (건물적 의미)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다. 대부분의 지역교회 안에 참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이라 함은 간혹 어떤 지역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교모임이 간혹 지역교회 안에서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참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을 다시 둘로 나누어 하나는 가시적 교회(visible church)라 하고 다른 하나를 비가시적 교회(invisible church)라 정의했다.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 안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엉겨 붙어 있다. 그러나 비가시적(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구원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여기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고, 그분이 친히 그 모임의 머리 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지체의 몸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구별하고자 하는 ‘참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참교회를 성경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참교회(성도들의 모임)의 기능에 따른 교회상, 즉 그 사역에 따라 그려지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성소,' 곧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동시에 탄생했는데, 이때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기를 약속하신다. 열한 제자는 서둘러 그 산을 향해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절하였다. 그런데 거기엔 의심하는 자도 함께 있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경배와 찬양, 즉 예배의 모습이다. 주님 앞에 나와 살아 계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다. 구약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성소의 이미지가 자주 선명하게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고,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씨름하던 브니엘이라는 자리, 이 모두가 바로 참교회의 ‘성소’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참교회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이미지는 ‘제자훈련소’ 인데, 곧 말씀 공부와 삶의 나눔, 그리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폈듯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실제로 참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산마루 턱에서는 머리 되신 부활의 예수님과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았다. 원어인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라의 뜻은 ‘참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 으로 해석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장면이야말로 최초의 교회를 말 그대로 정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그 유명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 되고, 그 내용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어, 먼저 제자된 그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 즉 하늘나라 대사관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오늘날 교회가 그리는 또 하나의 다른 이미지인데, 마치 이 이미지는 제자훈련이 행해지는 하나의 훈련소를 연상케 한다. 이 훈련소 안에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말씀 공부/말씀 훈련).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몸을 쳐 복종시켜 순종하는 삶을 산다(순종의 삶/내려놓기 훈련의 삶). 그리고 이 이미지는 마치 한 나라의 군대 훈련소와도 같다. 탁월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서 8장 강해 중, 그도 교회를 하나의 병역 막사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일차적으로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병영 막사입니다... 특무 상사인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임을 모르냐는 말이다...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똑바로 서. 차려.
앞으로 가.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인내도 배우고, 몸도
단련하며, 적군을 (사단의 공격) 향해 총 쏘는 법도 훈련받는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곳에서 규칙적인 삶을 통해 늘 전쟁에 준비된 태세를 갖추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된 자들은 전쟁터로 보냄을 받는데, 이 전쟁터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곧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심지어 건물적 의미인 지역 교회도 역시 영적인 전쟁의 현장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교회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드러내야 할 곳이 사실
오늘날 건물적 의미의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지역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본이 되어야 하는 도구이며, 또한
이곳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와 물질적 필요와 신학교에서
훈련된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당이
있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까지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회는 다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 교회라는 모양의 제도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신학교에서 잘 훈련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잘 정리된 질서 안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의 미국 지역교회들은 그 바탕에 개인주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한국적 문화와는 달리,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 식이므로 참견하면 서로 안 될 것

⁴ 로이드 존스, 『로마서 8장 강해』 서문강 역 (서울: CLC, 2007)

같은 견고한 벽이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모두 짧은 예배시간을 선호하고, 예배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거나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즐긴다. 또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재미를 돋우는 엔터테인먼트식의 예배를 추구한다. 예배시간에 가수를 초청하고, 유명한 음악단을 초대한다. 설교 말씀시간에는 늘 화면에 보충자료와 이미지가 말씀과 함께 전달된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로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흑인 지역 교회들은 그래도 비교적 깊이 있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매우 감성적이어서, 예배 분위기도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강조한다. 찬양 가운데 모두가 일어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친 나머지 지성이 많이 결여된 예배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본래 흑인 노예제도와 인종차별로 인해 생긴 오랜 상처를 입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밝혀오는 소망의 불빛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간다. 교회도 이러한 성향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도 ‘잘 사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 지역 교회들이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들이 한인들이 모이는 새벽 기도 모임을 보며 놀란다. “아니, 이 새벽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일 수 있지? 우리는 주일에 한 번 교인들 모으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또한 한인교회들의 선교사역과 말씀 사역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훈련에 주목한다. 오히려 한인교회들을 통해 미국교회들은 그들의 게으름에 반성하기 시작했고, 지역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고자 재각성 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제자에게 예배와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이러한 지역교회안에 있는 참

교회의 질서 있는 제도를 통해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참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비신자를 지역교회로 이끌어오는 일,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기 등이며, 간혹 평신도를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에서도 훈련받은 제자들을 지역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도록 하여 그 사역 범위의 한계를 한정한다.

그러나 올바른 평신도 사역지의 현장은 지역교회가 되기보다 개개인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참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야말로 평신도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임을 알아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며, 곧 기름부음 받은 자이며,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다. 다시 말해, 그는 성령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적 사역을 나눈다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⁵

2. 풍요 속에서 변질된 십자가의 삶

우리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앞장들을 통해 완성한다.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말씀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본질(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 줄 알게 해준다. 이러한 깨달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은 성숙을 요구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⁵ Max Thurian, *Consecration of the Layman* 『평신도의 제사장적 역할』 김현애 역 (서울: WPA, 2014), 111.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막 8:34-36). 성숙하다는 말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숙하다는 말은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소유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예수님은 이 성숙의 단계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쫓는 것.

최대 강국인 미국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앞서가며 고도로 발전해가는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고 하자. 이 뉴욕이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시대에 중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지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 중국에서 피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과연 이곳 뉴욕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쉽게 정리하면),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수 있는냐는 말이다. 만약 이 땅 위에서 이것이 가능치 않다면 뉴욕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선교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도대체 이 풍요로운 이 땅 위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은 무엇인가 말이다.

우리는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한 '현장'에 따라서 겪게 되는 십자가의 삶이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되는 육적인 고난이요. 둘째는 풍요롭고 안정된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더짐에서 오는 고난이다. 육적인 고난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또 스테반을 통하여 잘 볼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중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익히 듣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현장인 '풍요 속에서의 십자가의 삶'은

그다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러하다.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날마다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다. 두꺼운 통나무로 만들어진 무거운 십자가가 늘 내 어깨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것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며 증거이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육신의 고통과 피곤은 더해져만 간다. 그러나 풍요로운 환경은 세 가지의 충족, 즉 의식주의 기본이 충족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풍요가 주는 것은 편안함이요, 육신의 안정과 편리함을 포함한다. 십자가의 삶이 증거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대적인 셈이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볼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권에 들어섰고 어느 곳보다도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육신의 고통이나 고난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억압이나 핍박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소멸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곳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중세기의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을 때를 기억해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신앙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신앙인들은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때에 시작했던 부패가 오늘날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황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풍요로움 속에서 '실패한 십자가의 삶'을 살은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성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실패한 신앙인들이 종종 나온다. 먼저는 롯이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자신의 삼촌보다도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그는,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난다. 그는 후에 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사위들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딸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넘겨주고자 한 것도 신앙인 답지 않았으며, 열 명의, 다섯 명의 의인만 있어도 고통과 소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롯의 삶의 현장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무력해진 한 신앙인의 영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전혀 영향력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당신은 현재 청년 때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비전이 결혼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당신이 어느덧 중년의 날을 맞이할 때에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비전으로 인하여 불타고 있는가? 어느새 안정과 편안함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무력해진 자신의 영적 상태가 파악되는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일부러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찾아다녀야 할까?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기서, 십자가의 삶이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설계한 설계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말씀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이 풍요로운 현장 속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들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한다.

분주한 현장 속으로 들어와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이다. 복잡한 교통으로 직장까지 가는 데에만 한 시간을 차 안에서

씨름해야 한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정신 혼수상태. 식사는 주로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fast food)이고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의 현실. 수없이 밀려오는 고지서(payments)와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수많은 경쟁과 숨 막히는 현실과의 싸움. 서로를 대함이 차갑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다. 관계들 속에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한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는 왜 이리도 막히는지 두 시간을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 허겁지겁 배를 채운다. 점심을 대충 해결했으니 아니나 다를까. 꾸역꾸역 먹어야만 이제 좀 살 것 같다. 몸도 지친 데다 배도 불러 폼짝도 하기 싫어지면 소파에 앉아 한 손에는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을 놀려 대며 오락을 즐긴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또다시 다음날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다음날도, 그다음날도...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파는 따끈따끈한 열이 나는 오방떡을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오방떡을 일 년 365일 매일 먹는다고 하자. 결국엔 다시는 오방떡은 입 근처에도 안될 것이라고 질려 할 것은 분명하다. 반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반복된 바쁜 매일의 삶은 생각을 무더지게 하고, 열정을 잃게 하며, 삶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십자가를 들고 이러한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의 정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르려고 결단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 놀이동산에 있는 돌아가는 커피잔을 기억하는가? 며칠 전, 오랜만에 딸아이와 이 뱅뱅이 커피잔을 타고 나서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던 기억이 있다. 뱅글 뱅글 도는 컵에서 어지러움을 잃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컵밖으로

뛰어나가는 법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선택했다. 더 이상 신용카드 빚이며,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와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 싫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선교를 가겠다고 나서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결국 도피일 뿐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컵 안에서 컵이 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뛰며 달리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뛰다가 지친다고 잠시 머뭇거리면, 어느새 나의 영성은 무너지고 나의 생각은 흐려진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또한 유혹들이 나를 덮치는 것이다. 따라서 인내하며 꾸준히 정신 바짝 차리고 뛰어야 하는 것이다. 풍요 속에서 변질된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기형이 되어버린 신앙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첫번째 예는 알라딘 신앙인들이다. 알라딘 신앙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신앙인들이다. 마치 동화 알라딘에서 요술 컵을 비벼 나타난 지니에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원을 구하는 모습과 같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주 이러한 말을 하며 본인의 신앙을 더 헛갈리게 한다.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나는 어떠한가? 그대가 목회자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가?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대의 소망이라면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한 소망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기형이 되어버린 부류인 웰빙(well-being) 신앙인들은 신앙이 자기의 취미 생활로 전락해 버린 신앙인들(종교인들이라 말해야 더 맞는 표현이겠다)이다. 이들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자신을 반성하기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정신적으로 안정도 찾고, 또한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사귀를 위함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그대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본인의 채워짐만을 위함인가?

세 번째, 코끼리 신앙인들은 자기만족, 자기 안주에 머무는 신앙인들이다.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신앙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주무른다. 먼저 이들은 성경의 무오설에 정면 도전한다. 성경을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 해석해야 옳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본인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개인적 진리'(개인의 해석이 진리가 되는)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마치 모든 종교는 코끼리라는 커다란 진리를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만지고 있다고 믿는다. 코끼리 코를 잡고 있는 사람도 진리이고 꼬리를 잡고 있는 당신도 진리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름대로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가?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단지 시대적인 배경 차이라고 그 의미를 부정하겠는가?

네 번째, 몽상 신앙인들은 신앙을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인들. 이들은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 에서 다루는 요점의 주인공들이다. 본회퍼는 1906년 독일에서 출생하여 20세의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당대의 천재로서 인정을 받았고, 시대적으로는 히틀러 당시 정치적으로 꾸며진 국가교회에 반대하며 백림대 교수에서 추방당하였고 히틀러 암살 음모로 플로센부르크 포로수용소에서 1945년에 살해당한다. 그는 결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이 아님을,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책 속에 담은 그의 생각을 그대로 그의 삶에 실천으로 옮겨 본인이 직접적인 산 예가 되어 주었다. 그는 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 속에서의 신앙’ 을 마치 그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 역시도 말로는 "안주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주장하며" 실제로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차, 조금 더 편안한 집을 찾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만 하고 결국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과 결혼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다섯번째, 무덤 속의 신앙인들은 현실 속에 갇혀버려 소명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다. 이들은 현실이 믿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신앙 보다 높은 위치에 현실이 존재한다는 말은, 곧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현실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뚜렷한 진리는 말해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는 신앙의 도전이 없다. 기적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떠한가? 현실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에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ET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척하는 신앙인들이다. 이들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 ‘머리만 큰’ 신앙인들이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외계인 ET처럼 말이다. 이들은 이것으로 사역을 잘하는 줄 착각한다. 오늘날 우리 신학교들이 이러한 모습이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이론들만 설치고 그것을 인정한다.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성구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He’ 라는 주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 하고 모든 논문에 하나님을 ‘He’ 라는 주어를 못쓰게 하고 언제나 God를 써야 하는 불편을 겪게 했다. 그것도 미국의 신학의 뿌리라 자랑하는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형들 위에 고지설 신앙인들이 있는데, 고지설은 그리스천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 고지설은 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 예수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중력의 원리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흐르다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원리인 것인데, 즉, 떨어지기 위하여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는 강력한 에너지, 즉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고지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단코 성경적인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고지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목적이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첫째 목적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요 영향력이다. 고지설이 원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높은 위치를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할 때, 우리는 ‘자기만족’과 ‘자기 성취’로 인하여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선포’가 가리어질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자주 겪는 모습이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만큼 했다는 자기과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목적에 당도할 때까지 피나는 외침, 즉 “나는 낮아지기 위해 올라간다”라는 두 번째 목적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외침 속에 내가 어느덧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자. 그러나 문제가 있다. 올라가 보니 나의 영성은 바닥을 기고 있지 않은가? 오로지 외침만 존재할 뿐이다. 그도 그런 것이, 그간 일이다 공부다 열심이다 보니 내 영성은 자꾸만 하강한다. 올라와보니 이제 내려갈 영성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입에 늘

답는 말이, ‘나도 과거에는 열심이었는데’ 라는 말뿐, 남은 것이 없다. 복음을 선포하자니 복음이 낮설게 느껴진다.

반대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일이 생겨 낮은 지위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제 영향력은 언제, 어떻게 발휘하려나? 사회적 위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위치가 사라졌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일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결코 왕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라. 어부며, 세리며... 그들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바울 사도를 보라. 천막을 만드는 천막장이었다. 그렇다고 뛰어나고 유명한 천막장이가 아니었다. 오늘날 폴로(Polo)나 여러 유명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직업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이 크리스천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보라. 그러므로 고지설이 전제로 하는 “높은 곳에 올라야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의 내용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가? 그리고 요셉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다니엘은 포로 된 자였지만 사무국장 자리에 오른 위대한 리더이며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요셉도 종의 모습에서 한없이 상승하여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위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자. 고지설이 말하는 첫 번째 목적, 즉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가 그들 품 안에 있었다고 보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은 그 자리가 결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이 첫 목적은 존재하지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실과 열심만이 그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놓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국장이고 지도자가 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지 두 번째 목적, 즉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복음 중심의 삶)만 존재할 뿐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 사도에게도 오로지 두 번째 목적만 존재할 뿐이었다. 따라서 ‘고지설’은 결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이 고지설은 풍요로운 현장 속에서 변질된 신앙을 말해주는 대표들 중의 하나인 셈이다.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참된 성격적 원리는 무엇일까? 먼저 본인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을 찾으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성실히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 의사가 되지 않아도 좋고, 판사나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다. 서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고, 하버드, 버클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 그리고 머리를 최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낭비하거나 땅에 묻어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실력이 되어 하버드와 같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가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실력이 안 되면 낮추어 가도 괜찮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다지 우리 인생에서 참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크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대나 하버드가 복음을 빙자한 개인의 인생 목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오로지 복음뿐이어야 한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갈 6:7-8).

다음으로 본인이 속한 일터에서 목사(사목)와 같은 사역자가 되라!

목사와 같은 사역자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것이 곧 성경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그 뿐이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이요. 이것이 곧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오래 황폐한 것을 중수하는 역을 감당하기 위해 마땅히 택해야 할 자세인 것이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딤후 4:12). 이 말씀은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된 디모데에게 권고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오늘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기로 서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고 말씀이다.

한세대 대학원 김진익 교수는 ‘영적 리더십과 리더의 특성’이라는 글에서 영적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잘 정의한다. “세상의 리더십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상대를 움직이는 능력이지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다. 특히, 영적 리더십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초월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리 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영향력이며, 그 기초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여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결코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신이 맡은 전문 분야의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⁶

이제 거룩한 삶과 복음적인 삶의 참된 이해 관계를 살펴본다.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외의 그 무엇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다. 구약시대에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이 거룩한 삶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약에서 강조된 율법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다. 할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과 구별하고자 한 하나의 거룩을 상징하는 표징이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스도의 죄속함은 거룩한 삶의 강조에서 복음적인 삶의 강조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참된 이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한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강도 당해 부상 입어 아파하는 자를 보고 즉시 피해 간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부정한 것을 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는 바로 구약에서 강조된 거룩한 삶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만져주고 가까운 주막에 쉬게 하며 강도 당한 자를 돕는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되어야 할

⁶ 정진호, 『예수는 평신도였다』 (서울: 홍성사, 2014), 256.

하나의 표상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핵심은 곧 복음이 거룩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과 복음적인 삶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복음적인 삶" 이 포괄적으로 "거룩한 삶"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순 없다.

복음적인 삶 <거룩한 삶

따라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외의 그 무엇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설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범위는 넓혀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적인 삶의 범위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복음적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제자를 삼는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기본인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루 활동 중 기본적으로 먹는 밥 세 끼를 거룩한 삶이라 한다면 실제적인 활동 사항들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만인제사장설’ 을 선포한 종교 개혁자 루터는 목회자가 행하는 말씀 해설과 성례(떡/포도주) 관절 등의 거룩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도들(평신도)의 직장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도 다 거룩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성경적이며, 분명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의 모양 이상으로,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 직장에서도 직장일을 예배드리듯 하라" 라는 직을 감당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거룩을 더 중요시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생명을 더 고귀하게 여긴 것처럼 말이다.

일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복음임을 알아야 한다. 이원론적인 관점, 교회일(기록한 일)과 직장일(세상일)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장일도 기록한 일이라고 해서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에 따른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다는 자세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기록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한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만약 치과의사가 치아를 뽑으면서, “아, 이 기록한 일을, 기록하게 뽑자”의 자세로 일을 대한다면, 그는 어느새 그 일 자체를 기록이라는 목적으로 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자 일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복음임을!

그렇다. 우리의 직장 일의 목적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님의 사역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틈틈이 그의 재능(또는 재주)을 사용하여 일하며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사역에 집중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오해의 여지는 제거하고) 복음을 선포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8:16)"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이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살후 3:8-9). 그러므로 그의 복음 사역에는 집중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등의 잡다한 생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의 복음 선포는 순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된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순금의 순수함 같은 그의 사역을 통해, 마치 수정의 투명함을 통함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 밭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통해 바울 사도님의 삶을 엿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오로지 복음만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가 어디에서 일하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일하든,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오로지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한 인생을 바치는 모습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는지가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을 소망한다. 즉, 복음으로 쓰여진 인생 이야기가 되자는 말이다. 마치 바울 사도의 인생처럼. 그의 삶의 모습 속에는 복음이 그의 인생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일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곧 복음임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확인한다.

3. 일터에서 야생 영성을 키운다 - 우리의 열정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⁷

즉, 우리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일터 안에서 찾아 그 안에서 복음의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을

⁷ Timothy Keller, *Every Good Endeavor*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2013), 209.

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더욱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즘은 스승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색된 시대이다. 대신에,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진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오늘날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과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에서 오는 차이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날, 그들의 직업, 집, 개인의 삶이 일시 정지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모습을 기억해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이 순간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승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스승 되신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아닌가. 이두가지의 큰 차이점을 잘 알고, 그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오늘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했다. 이 경악스러운 진술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제자도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 확실히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회퍼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적인 순교에로의 부름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제자애로의 부름을 받은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개인적인 희생이 무엇이든지 말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제자를 섬기기에 꼭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 이유인즉슨, 지속적인 말씀의 섬김과 삶의 나눔이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가 되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여기서

언급된 평신도란 좁은 의미로, 주업이 목회자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제자를 삼는 것은 첫째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일대일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대략 30분 정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보내는 시간과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평신도 청년에게 있어서 참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의 대상이 직장동료들로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직장은 바로 나의 제자를 삼는 현장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함께 일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나의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 거기에다가 말씀 공부도 함께 해야만 "온전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양육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가르침(복음/성경공부)
2. 삶 속의 적용(삶의 나눔)
3. 함께 사역하기(동역자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를 제자로 삼기 위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나는 먼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그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따른 순종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자훈련은 그러므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침 일찍 회사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직장동료들과의 삶의 나눔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How) 시작할 것인가?

(1) 먼저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한다. 그와 함께 아침마다 Q.T.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2) 그리고 함께 회사를 위해 기도하라. "회사의 선교화를 위하여." 이 과정에서 셋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명만 있으면 그것은 작은 공동체 모임이 이미 형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3) 이렇듯 많은 시간과 삶을 함께하는 이들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도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의 직장 안에서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제자훈련의 문제는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직장에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훈련받은 난, 교회라는 틀 안에서 또다시 제자 양육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부족해지는 요소가 바로 세 번째인 "함께 사역하기"이다. 우리의 모든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동역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더욱 구체화하여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후에는 섬김의 대상이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회사가 변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변한다. 교회는 많은데, 왜 우리의 문화와 사회는 변하지 않는가?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적인 교회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전혀 달리지 않은 메마른 우리의 회사와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참뜻을 살펴본다. 그리스도의 참제자라 한다면, 그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또한 가르치는 자리까지 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까이다. 먼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과 늘 동고동락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전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제자들을 깨우신다.

"제자들이여,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 하루의 일정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자도록 합시다. 모두들 오늘 사역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날의 일정표가 되었고, 시작과 끝이 된다. 이처럼 우리도 눈을 뜨면 말씀으로 향하자.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전개한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며, 말씀과 함께 잠이 드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잘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말씀의 묵상과 공부는 곧 예수그리스도와의 동행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운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늘 내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에 갈 때도 작은 크기로 된 성경책을 가방에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암기, 묵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공부하기 전에도 늘 말씀을 한 장 읽고 시작하도록 하자. 이러한 삶의

자세는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우선순위 위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내일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위해 공부하기 전 주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 무엇도 주님 말씀보다 귀하거나 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우리는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늘 목상만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후에 제자를 가르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역부족이다. 또한 늘 설교만 듣다 보면 더 이상 스스로 말씀 보는 법을 익힐 수 없다. 주로 평신도님들이 놓치는 것이 성경 밖에 있는 신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인데, 곧 시대의 배경과 역사의 흐름, 원어에 대한 풀이 등등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귀납적 성경 해석에는 익숙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은 후에 마태복음을 가르치게 될 터인데(말씀 한 권 한 권을 공부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성경 66권 모두를 제자훈련을 받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따라서 책 한 권을 배우고 나서는 스스로가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교에서도 66권을 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신약개론을 배운 후에는 선택과목으로 각 권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졸업 후에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몇 권의 말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후에는 이제 어느새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졸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도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목회자들과 한 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며 이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온 백성이 공동체로서 모인 삶(에클레시아)과 흩어진 삶(디아스포라)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이다. 그리스도인은 다 함께 왕 같은(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말씀을 간직한 선지자적 백성(모든 신자의 선지자적)이다.”⁸ 평신도 사역자에게 지성과 영성이 둘 다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영성만을 강조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지탄하며 이제는 지성의 개발과 발달을 통해 사회적 진출과 문화적 성서 회복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우리 면밀히 놓고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과거 영적으로 성숙한 평신도들이었는가? 한 평신도 청년이 교회에 매일 가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많은 시간을 드려서 한다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숙한 영성을 지닌 자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한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영성 수준에 있는 자, 즉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만한 사역자 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평신도 청년의 영성은 말씀의 이해 깊이가 늘 뒤받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이 좋다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 영적인 성숙도를 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가를 기준으로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참된 영적인 성숙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 직장에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출근을 하시고, 또 근무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⁸ R. Paul Stevens, *The Abolition of the Laity*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20), 187.

먼저 그분은 아침 일찍 직장에 나와 말씀을 보며 Q.T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실히 정직하게 사무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고 늘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그래서 동료들과는 좋은 관계성을 성립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동료에게, "자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한 번 오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찾아 집으로 초대해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몇 주 후부터는 함께 아침 일찍 나와 새벽 기도를 회사 안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하실 것이다. 회사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곧 금요일 오후에는 회사의 한 사무실을 빌려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예배를 인도하실 것도 분명하다. 또한 그의 주위에 영적으로 지친 동료들을 말씀으로 위로/도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선포를 기억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 단정 짓지 말자. 이것은 한 영적 리더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평신도인 나 역시 후에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된 그에게 동일한 권면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성숙과 더 많은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한데 이것은 곧 오늘날의 목회자님들이 되셔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의 본질은 한 목회자가 말씀으로 한 불신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된 그를 제자 훈련하여 자신을 닮은 목회자로 성장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목회자로 성장시키는 작업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성장된 평신도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목회" 할 수 있도록 사역장을 넓혀주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잘 훈련된 평신도 청년은 그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이다. 바로 그들의 일터에서 말이다.

영성의 야성은 삶 속에서만 키워진다. 부딪혀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 야성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오기 때문이다. 울타리에서만 길들여진 말은 결코 야생말을 따라잡을 수 없다. 또한 새장에서 자란 독수리가 결코 그랜드캐니언을 무대 삼아 누비는 야생 독수리보다 높이 날아오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이 길들여야 할 곳도 우리의 현장인 셈이다. 이곳 현장인 부요한 사회는 영적 전쟁이 그 어느 곳보다 더 치열한 곳임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함은 그만큼 우리의 영성을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 영성은 그 야성을 찾게 된다. 여기서 영성의 야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라 할 수 있다.

조용한 곳에서는 누구나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흔들리는 배의 선박 위에서 우산을 쓰고도 공부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세상만사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성의 야성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이 없이는 사업과 사역이 일치될 수 없다. 따라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외에 영성이 깊어지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는 바로 이러한 영성을 늘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드리는 곳도 그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크고 깊은 평안을 누릴 곳도 그곳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마치 지푸라기에 붙은 불과도 같아서 불이 타고 있는 중에라도 이내 꺼져버리고 만다. 우리 영혼은 밖이야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그 내적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훈련된 영성이 그 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성의 야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대한 인물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경의 유일한 사람, 바로 다윗이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고난과 거대함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 그는 영적 야성 그 자체였다. 또한 그의 야성적 영성은 그의 저서인 시편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다.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영성을 배웠다. 성 어거스틴을 포함한 근세의 신앙인들도 시편을 외우는 것이 필수였던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시편을 통하여 다음 네 가지 적용할 부분을 찾아보기를 원한다.

야생 영성 키우기 1단계 - 직장에서 예배드리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 5:3). "오라 우리가 곱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6:6).

예배는 영문으로 Worship이라 한다. 이 단어는 wealth-또는 worth- 와 -ship의 합성어이다. 즉, '가치 있는' 과 '질 또는 모양' 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기본자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우리도 역시 그를 본받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며, 주께서 오늘 하루 인생살이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곧 예배이며 우리가 자주 듣는 QT의 핵심인 것이다. 이것은 기본이며, 이 기본은 후에 급한 상황이나 힘든 곤경 앞에 불가피하게 쓰일 것이다.

야생 영성 키우기 2단계 - 직장에서 말씀 공부하기

시편 1:2-3 "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직장에서 말씀 공부라니?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만 보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명이며 따라서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을 직장에서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성실히 반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줄곧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 경비원은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넣고 다니며 말씀을 공부하신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신학생이시라고 한다.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신학교에서 자신을 사역자로 겸비하시는 그로부터 깊은 도전을 받는다. 시간이 생기는 휴식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곧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동행임을 늘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외에 영성이 깊어지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 6:4-9)"

물론 쉬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다만 흘러가지는 말자는 것이다. 북한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하루도 편히 누워 잘 수 없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야생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윗도 이러한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묵상하는 자를 그 시냇가에 뿌리를 담가둔 나무로 비유한다.

야생 영성 키우기 3단계 - 직장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체험하기

시편 25:4-5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며 살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라는 말이다. 본문에서 다윗도 '주의도'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 즉, 그분의 사역에 나를

동역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 12:26)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느새 하나님 계신 곳에 와 있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 양육이 하나님의 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시시 때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데,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내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곧,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일터 자체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 교체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발견하여 그분의 일에 동역할 수 있다. 이렇듯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생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8)." 다윗은 분명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였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구약에서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 드물었는데 그중 하나였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기 위해 늘 성령님의 말씀 하심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어떤가? 우리의 심중에는 주의 뜻이 있는가?

야생 영성 키우기 4단계 - 직장에서 제자 훈련하기.

시편 40:9-10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가 일하는 현장에서 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임으로 여기에서는 살짝만 다루기로 한다. 즉,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삶으로, 나의 정직과 나의 성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의 입술로 복음을,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영성의 야성은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만 키워진다. 교회 안에서만 키운 영성은 그 야성을 갖지 못한다. 세상과 부딪혀 체험해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영성이 없이는 결코 사업과 사역이 일치될 수 없다.

4. 전문 직업을 선교본부로 전환하기 - 치과 의사의 예

EVERYDAY Church in WORKPLACE

미국에 살고 있는 보통 치과 의사들을 한번 살펴보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을 세우고 나면 하루에 버는 돈이 보통 사람이 일주일에 버는 돈과 맞먹는다. 그렇게 앉아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돈벌이를 하며 일한다. 아침에 출근해 하루 종일 사람들의 입안만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밀한 치료들을 하고 나면 머리가 빠근하다. 그러므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치과의사라는 사실은

그리 이해하지 못할 보고는 아닌 것이다. 우리(미국의 치과의사들)는 이렇게 새장 같은 곳에서, 갇힌 한 마리의 새 마냥 살면서 무한한 푸른 하늘의 높이와 그 깊이를 망각하며 살아가기를 이미 결정하였는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그냥 던져주는 모이를 쪼아먹듯 하며 앉아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나의 동료 치과의사들이여,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며 새장에 갇힌 새 마냥 살기를 그대들은 진정 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함께 높고 푸른 하나님께 예비하신 창공을 향하여 힘껏 날아오르기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투잡(two job)의 시대

바울 사도의 직업이 치과라면 분명 선교지역마다 다니며 텐트를 만들기보다 치과치료를 했을 것이다. 본업이 아니라 분업으로 말이다. 현 미국의 추세는 한 사람이 한 직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교수직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강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은 시간이 분명 있을 터인데, 이러한 시간에 그는 책을 쓴다고 한다. 나중에 이렇게 쓴 책들을 출판하므로 작가가 된다. 어떤 분은 회사 샐러리맨인데, 그의 여가 시간에는 학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나중에는 아예 학원을 차려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또한 한 분은 미술 학원을 경영하면서 오후에는 학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시간이나 아침 시간에는 광고 디자인 작업을 한다. 이렇듯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기가 쉽다.

치과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이 치과 전문직의 강점을 이용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아는 어느 치과 의사는 일주일에 4일만 일을 하고

도예품을 만들어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한다. 어떤 치과의사는 아예 사업을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환자를 본다고 한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치과업을 나의 본업이 아니라 분업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본업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역자이다. 바울 사도님이 천막장이(Tentmaker)의 분업을 통해 그의 본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나의 분업인 치과업으로 나의 본업에 더욱 충실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치과직의 강점들을 잘 개발해서 사역자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한다.

치과직의 강점

1. 아픔을 고치는 직이다.

다른 의료직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은 사람들의 아픔을 낮게 하는 일이라 그만큼 보람이 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영적인 아픔도 치료하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아픔도 치료해 주셨다. 따라서 그만큼 무게가 있는 직임은 틀림없다.

2. 응급환자가 많지 않다.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만큼 일에 대해 부담이 적다는 말이다. 다양한 의료직 가운데 치과와 피부과가 그 예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이러한 응급환자들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을 잃게 된다. 가족들과 모처럼 휴가를 나와도 전화 한 통화로 인해 모든 것을 접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3. 한 환자를 여러 의사들이 같이 치료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입안에 보통 치아가 32개가 있다. 한 사람을 치료한다기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아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이 함께 한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없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꿔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할 때에도 아무 문제 없다. 같이 일하는 다른 치과의사가 대신해서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경제적인 수입이 높으므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강점을 이용하여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된다.

<예수님 치과>라는 책을 쓰신 김범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김범수 치과 선생님은 LA에서 23년째 일하시면서 매년 일 년이라는 시간의 십일조를 선교지에 보내신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의 모습들을 책을 통해 만날 때면 나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특히 다음의 한 부분은 나의 눈망울을 젖힌다.

“치료 후에도 계속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환자들도 한 그룹으로 모아 놓고 용법을 설명한다. 이들에겐 '하루 세 번, 식후에 한 알씩 드십시오'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살기 때문이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드십시오'라는 설명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가지고 간 항생제 3천 정을 모두 나누어 주며 나는 그들 앞에 한없이 미안하고 빗진 심정이 되었다. 평소에 이를 잘 닦고 치실을 사용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 마실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는 그들에겐 칫솔질도 사치이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손에 익혀진 의술과 치과 지식은 나와 내 가족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임을 믿는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선교 현장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임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5.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팀사역 (Group Practice) - 종합 치과

나는 특별히 치과대학으로 들어가 말씀 훈련과 제자훈련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된 동역자들과 더불어, 일터에서는 환자들을 보고 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같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제 치과병원이 세워지면서 6-7명 정도의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되었다. 바로 Group Practice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치과병원에서 갓 졸업한, 그러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의사들이 우리 병원으로 들어와서 레지던트를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6-7명의 동역자들은 낮에는 환자를 보고, 저녁때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현 선교사님들의 know-how를 바탕으로 사역지를 발굴하고(주로 미중족지역) 그곳에 우리 중 한 명을 보내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일정한 기간(term)을 정해 놓고 로테이션(rotate)을 하고 있다. 먼저 사역지로 출발한 동역자는 그곳에서 환자를 보며 말씀 훈련과 제자훈련을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힘껏 섬기는 것이다. 이 동역자가 나가 있는 동안은, 그의 빈자리를 나머지 5-6명이 메꿔준다. 환자를 대신 봐주고 기다리는 가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돌아온 동역자는 필요한 것과 사역 상황을 presentation 형식으로 나누고 다음에 가게 될 동역자를 돕게 된다. 그리고 며칠 후 다음 동역자가 또 일정 시간 동안의 사역을 위해 같은 곳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기업이 제자 훈련하는, 선교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속적인 사역을 필요로 한다

단기 선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선교지에서는 잠시

반짝하는 사역보다 오래 지속적인 사역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가끔 그 사역지를 찾는 것이 아예 가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훈련은 오랜 훈련과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어야 한다. 교회의 목표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침투하는 것인즉,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⁹ 그러므로 치과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미국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 많이 거둔 자원으로 굶주리는 민족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신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미국에 우리의 치과 사역 본부를 세우기를 계획한다. 이 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practice) 지구를 세우는 것이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더 나아가 아프리카나 미종족지역에도 말이다. 세워지는 곳에서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진료가 가능할 때까지 지속해서 기금(fund)을 이곳 미국에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이 더 험난해질수록 그 지역에 가까운 선진국에 새로운 본부나 자매 결혼을 맺은 치과를 본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종족지역이 많이 있는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에 치과 사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근처에 기니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본부를 정하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 지역으로 치과 사역이 들어갈 때에도 역시 팀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한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이다. 치과 사역으로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고... 참으로 할 일이 많다.

⁹ Hendrik Kreemer, *A Theology of the Laity* 『평신도 신학』 홍병욱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200.

시대적 사명

나는 이러한 소명을 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여긴다. 시대적 사명이라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한 부분인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이끄는 것이 그의 시대적 사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무장시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의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시대적 사명자인 것이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이 소명의 어디까지가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까? 나는 오늘까지도 이 질문을 한다. 어쩌면 미국에 본부를 세우는 것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제자가 이 시대적 사명을 이어받아 훗날 중국에도 치과 본부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미종족들에게도 말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 소명주신 하나님께. 또한 내게 치과라는 직업을 허락하신 주님께. 주께서 주신 사명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충성하기를 오늘도 결심한다.

제3장

이론을 적용한 일터교회

1. NYU 치대 성경공부

모임방식

- 매주 목요일 저녁 NYU 치대 10층 Lecture Room;
- 순서: 기도, 찬양, 성경공부
-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학생과정 중 SOMA MISSION 참여 (봄방학마다- every year)
- 2000년에 시작된 모임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총 현인원: 12명

캠퍼스 사역의 감동 (첫 모임의 시작)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뉴욕 치과대학에서 처음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친구 세 명이서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기도 중, 학교에서 학업으로 인해 지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다. 다른 치대들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암기할 것들과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지... 교수들은 우리를 공부하는 기계들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메마른 뉴욕을 사로잡고 흔들며 젖히는 영은 그 어느 곳보다 더욱 암흑인 듯싶다. 특별히

이곳 뉴욕 치과대학은 학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수들이 유대교인들이다. 바로 크리스천을 이단 취급하는 그러한 유대교 말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도들, 그들은 주위 학생들로 하여금 간혹 교실 안에 있는 벽 밑에서 알라신을 향하여 수십 번씩 절하는 것을 목격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동성연애자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곳.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기저기. 하나님은 우리 세 명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였고, 며칠의 기도 과정을 가진 후, 우리는 세 명만 모였던 이 모임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결정을 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었다. 그러나 부담감과 두려움도 가득했다. 우리 역시 공부할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 섬기는 이 사역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서기가 아니라 셋이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용기도 북돋아 주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첫 모임을 세포학을 강의하는 교실에서 갖기로 하고 나는 준비한 찬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교실로 들어섰다.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싸늘함. 그 느낌은 마치 늦은 밤, 허허벌판의 사막 모래 위로 밀려오는 조용하지만 차가운 바람 같았다. 황폐한 곳. 그리고 메마른 곳. 바로 내가 선 이곳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곳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여 이곳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고백과 동시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기타를 들고 첫 곡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수없이 되풀이하여 찬양했다. 순간 내 안에 학교
 영혼들을 향한 간곡한 마음이 가득 메어왔다. 그리고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져 거기서부터 메어 나와 입술 끝까지 뿜어져 나오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긍휼, 그리고 애절함,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고
 계신 것이었다. 이 찬양의 울림은 마치 사막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 오르는 듯,
 황폐한 교실의 중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었다. 이 황폐한 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17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메마른 그 세포학 강의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새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벧엘’의 장소로 지속되어온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배출된 제4대 리더 오형제님은 지난달 성경공부모임에
 속한 다른 3명의 학생과 또 그 외의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 그들이 부푼 열정을 가지고 들어선 멕시코의 오아사카(Oaxaca)라는 지역은 이미 오래된 미신들과 퇴폐적인 문화, 그리고 가정폭력 등으로 피 멎은 상태였다. 이곳에서 이 사역팀은 450명가량의 많은 환자들을 뜨거운 해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치료했건만, 이들 안에 자리 잡은 오래 황폐한 잘못된 신앙과 퇴색되어 무너져내린 잘못된 가치관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치료 후 말씀을 선포하고 영접 기도의 초청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많은 비용과 경비를 들이고 이곳에 왔고, 와서 또 많은 인력을 쏟아부어 치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명이라니 하며 낙심할 수 있었으나, 오 형제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멕시코 땅을 밟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다고 한다. 그 비전은 마치 뉴욕 주립대학의 캠퍼스 사역이 세명으로 시작되었듯이, 이곳 황폐한 지역에서도 그날 영접 받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세 영혼을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2. SOMA 미션 팀

- SOMA MISSION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봄 학기/가을학기) Mission 팀을 멕시코에 보내고 있다. 팀은 대략 2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치대생들, 치과 선생님들, 치과위생사님들, 그리고 어시스턴들로 이루어져 있다. 치과에 관련되지 않은 임원도 함께하여 팀을 이루어, 사역지에서는 치과 사역과

동시에 어린이 섬김 사역을 함께 한다.

- 모임 방식: 매달 한 번씩 모여 기도 모임을 갖고,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계획한다.

- 선교지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다른 사역자들은 환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 현재 11년째 사역 중이며, 마지막 가을 사역(year 2022)에는 총 19명 참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가라"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예수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결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방안에 들어앉아 평생을 말씀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마치 수박을 그림책으로만 들여다보며 연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문을 걷어차고 밭에 자라고 있는 수박을 반으로 썬~ 쪼개 빨간 수박 안 살을 큰 주걱으로 파먹기 전에는 수박의 참 맛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주석들과 신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학의 틀을 잡아 주었던 칼빈 신학자도, 구신약 주석을 완성하신 우리나라의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도 모두 그들이 박사이기 전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였다. 세계복음주의 신학계의 주목받는 정성욱 신학 교수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와 목회 현장을 떠나 상아탑에 안주하는 신학은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자.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역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란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선교라 함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해외, 곧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며, 또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활동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지역, 즉 미전도 종족을 집중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최전방에서 전투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이 밀집된 곳은 우리가 극히 들어 알고 있듯이 10/40 창 지역이다. 이 최전방은 가장 싸움이 험난한 곳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재정비하여 최전방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하며 우리 역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결코 오늘날의 선교를 미 종족 지역에만 국한하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모든 종족은, 즉 구별이 없다는 말이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듯이 미종족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적인 순종이 아닐 수 있다. 더욱이 미종족이 아닌 종족을 선교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¹⁰ 정성욱,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서울: 홍성사, 2014)

관념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내가 그분 앞에 먼저 서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빨리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미종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조금해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30대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60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SOMA MISSION의 비전, 그리고 비전의 삶

멤버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주여,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이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등 우리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환경, 사람들, 그리고 온갖 문제들...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산에 오른다. 그리고 내가 직면한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길 원한다. 산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크게만 느꼈던 문제들이 어느새 나의 시야에서는 작게 보이는 것이다. 높은 산 위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비전은 이렇게 나의 시야가 넓어졌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것은 곧,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아내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남방으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축복 하사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삼촌 벌되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롯에게 더 유익한 거래를 제시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이도 한참 어린 롯은 이러한 삼촌의 제시에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는 껄뽀하게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결국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훌륭한 땅을 먼저 차지하는 데 급급해한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떠나는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배신감과 쓸쓸함, 그리고 허전함만이 자리 잡는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마 아브라함은 머리를 푹 숙인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인생 푸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눈을 들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 내가 인생의 패배와 양심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억하는가, 롯이 눈을 들었을 때는 요단의 물질적 풍요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 이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비전을 보았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진 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가 보는 시야와 롯이 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이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 과거의 인생을 살 수 없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즉각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말이다. 따라서 비전을 발견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옛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인즉, 내가 삶의 실패와 암흑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한 이 말씀은 곧 지상명령의 첫 명령인, "가라"와 동일한 말씀인 것이다. 우리가 이 '가라'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나 역시 '가라'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림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나의 비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허락하시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을 허락하셨다.

치과 의사 + 신학 = '가라'

나의 소명 - 치과 의사 + 신학 = '가라' (선교적 사명)

SOMA Mission은 NYU 치대에서 먼저 준비된다.

치과대학에서 먼저 말씀 훈련과 제자훈련을 이루어지고 있다. 치대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훈련도 받고, 일 년에 한차례씩 선교지로 간다. 그리고 세워진 치과병원 일터에서는 말씀으로 잘 양육된 동역자들과 더불어 일터에서는 환자들을 보고, 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같이 변행한다. 이렇게 어느덧 6-7명 정도의 사역자들과 함께 이일을 준비한다. 이 종합 치과 병원에서 갓 졸업한, 그러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의사들이 이 병원으로 들어와 레지던트를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6-7명의 동역자들이 낮에는 환자를 보고, 저녁때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선교사님과 network을 바탕으로 사역지를 발굴하고(주로 미전도지역) 그곳에 우리 중 한 명을 보내기도 한다. 막연하게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이 기간을 정해 놓고 번갈아 가며 사역하는 것을 계획한다. 먼저 사역지로 출발한 동역자는 그곳에서 환자를 보며 말씀 훈련과 제자훈련을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힘껏 섬긴다. 이 동역자가 나가 있는 동안, 그의 빈자리는 나머지 5-6명의 치과 의사 사역자들이 메꿔준다. 환자를 대신 봐주고, 기다리는 그 사역자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돌아온 동역자는 사역지에서 필요한 것과 사역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나누고 다음에 가게 될 동역자를 돕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음으로 가게 될 동역자가 다시 사역을 위해 같은 곳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기업이 제자 훈련하는, 선교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가난한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치과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서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교회이다. 또한 이곳이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를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당신이 속한 직장 안에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일대일을 거쳐 두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 모임을 구성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함께한 공동체와 더불어 직장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이 기업이 주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서 말이다. 한 직장에 몸담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3. COME치과 일터교회 -

- COME치과의 이름인 ‘COME’ 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에서 가져온 의미이다. 2006년에 뉴저지에서 시작하여 그 목적을 선교에 두고 있다.

- 정기 토요일 모임: 토요일 일이 끝나면 모든 일터의 스테프님들은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찬양,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 양육을 한다.

-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점심을 2시간으로 늘려서 세미나 형식으로 삶의 주제를 강사를 초청하여 함께 나누고 토론한다. (주제 - 관계, 나의 소명, My career, etc.)

- 치과 내에서의 서로 함께 일하며 삶을 나눈다.

- 치과에서 따로 선교비를 정하여 섬기고 있으며 다른 치과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함께 SOMA MISSION을 준비하고 참여한다.

첫 모임을 한 후 소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듯 자주 안 다니는 길은 울퉁불퉁한 모난 곳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걸음이 다른 사람들의 비전에 도움이 된다면 오늘도 담대히 그 길을 걸으며 또한 그 길을 익숙한 길로 만들기를 소원한다. 훗날 많은 치과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비전은 현재진행형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너희는"의 해석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재해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당시 산위에 오른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던 바울의 사역과 또 사도행전에서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사역들 속에서 이 지상명령은 결코 그때의 열한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님을 확연히 증명하고 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현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 한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건물적인 교회, 즉 지역교회의 사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지역교회"에게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지역교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위험은 벌써 우리 교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 모두를 망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는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을 목회자님들께 떠 맡겨 버리고 말았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그것은 목사님 몫이라고 한다.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 우리는 "감히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줘?" 즉각 거절한다.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는 또다시 '이것 역시 목사님들이 하실 일'로 고정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 지상 명령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에서-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바나바는 도중하차했던 마가를 그의 격려의 은사로 마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준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아 마가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바울 사도 역시 아비 된 자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의 제자로 삼아 인도해 주었다. 이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 꾸준히 말씀으로 훈계하고 삶으로 보여주었고, 결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의 범위를 좁혀 놓지 않았다. 일대일의 사역을 무척이나 중요시했음을 볼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당신은 제자가 있는가? 말씀으로 당신을 제자 삼아준 선생님이 계시는가? 만약 당신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라도 '없다'라 하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는 말씀에 당시 집사였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읽던 이사야의 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후, 길을 걷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 받기를 청하는 내시에게 즉각 반응하여 세례를 주었다. 빌립은 그가 집사 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평신도인 당신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한 목회자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까?

또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던 지도자 아블로가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하고 반응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였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신학자와 같다 할 수 있다.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마태복음의 최고 지상 명령에 대하여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한 열한 제자에게 국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단지 교회나 목회자님들의 사명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리키는 "너희는"은, 곧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고 지상명령은 곧 모든 제자들의 소명과 사역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대를 포함한 청년 사역자, 즉 평신도(Laos)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명령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 개인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이다. 나, 개인은 좁은 의미로 교회인 것이다. 따라서 건물적인 의미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이전에 극히 개인적인 사명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분을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현재 일터에서의 제자도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감당한다.

1. 가르침(복음/성경공부)- 정기 토요 모임에서 이 부분을 감당 중.
2. 삶속의 적용(삶의 나눔)- 함께 일하는 일터이기에 나눔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3. 함께 사역하기(동역자의 삶)- SOMA Mission 팀과 연결선을 이룬다.

콜롬비아 치대에 성경공부 캠퍼스 사역을 처음 시작한 날을 기억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형제, 한국 카이스트를 졸업한 자매, 그리고 그 외에 다섯 명이나 되는 치과의사들이 모이게 되는 첫 모임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질문한다.

“엘리트 지성인들이 모이는 이 성경공부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순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다. 우리 모임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아직 참제자는 없다’ 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떠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러한 시야를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모임을 인도해 나갈 인도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곧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요동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다시 쉽게 말해서, 제자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무엇보다
 먼저 “학생” 또는 “배움을 받는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강조되는 것은 ‘복음의 선포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현시대에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이면서 또
 청년 사역자로서의 관점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의 제시가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유는 아직까지 내 주위에 젊은
 신앙인들 중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평신도를 만난 기억들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일터에서 강조된 것 - 복음의 기쁨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에 일화를
 소개한다. 프랜시스에 친구 레오에게 복음이 주는 이 ‘온전한 기쁨’에 대해
 말한다. “그들이 지저분하고 축축하고 지치고 배고픈 모습으로 막사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거절당하고 계속 방해받고 결국 무력으로 쫓겨난다 해도 만일 우리가
 그런 불의와 박대와 멸시를 인내로 받아들이고 성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상처를 복된 주님의 고난으로 알아 인내와 기쁨으로 당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면, 오 레오 형제여, 마침내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고
 기록하시오.” 이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치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되고 묶기인 채 된 자에게 참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준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도 좋은 소식이었을까? 인간에게 한없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피 흘리며 죽음을 맛보아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결단코 좋은 소식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즉 ‘아빠’가 되어 주기로 결정하셨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인 내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아픔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만난 특별한 환자처럼 말이다.

내가 치료한 이 환자분은 한쪽 눈과 위의 앞니들을 다 잃은 분이시다. 실명한 한쪽 눈에는 인조 눈동자를 심었고, 잃어버린 앞니들은 틀니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나에게 어찌 된 사연인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략 6개월 전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다가 어린 아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순간 몸을 날려 달려오는 차에 몸을 들이댄 것이다. 그 결과 아들은 목숨을 건졌고 그 대신에 본인은 한쪽 눈과 앞니 전체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그의 말투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생명을 다시 찾은 아들 때문이다.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따라서 복음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신 예수님께조차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함께 동료들과 나눈다.

제4장

결론

1. 해석 - 십자가를 들고 현장 속으로!

이제 함께 겸손히 십자가를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십자가의 삶이란 이사야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처한 현장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십자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징한다. 어린 양을 대속물로 각을 떼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대속물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 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

표정과 말하는 혀까지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인 이 사회에서 하루 24시간 중 최소 10시간 이상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아, 나는 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만 일해야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미국 땅에 1%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주로 10시간씩 5일을 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세, 세금, 아이들 학비, 전기 값, 크레딧 카드 빚 등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용이 불량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된다.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절반의 시간이 직장이기에 우리는 이 직장이라는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깨닫게 된다. 목회자님들은 그들의 사역과 사업이 동일하기에 어찌면 평신도님들만큼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소명과 사역에 연관 지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고민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신학교에 남아 교수가 되기를 소망한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직장인들은 자신이 종사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려 한다. 시간적으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하는 것이 벼차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온 힘을 쏟고자 하는 강한 열정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원하는 바램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필요도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평신도 사역자가 원하는 바램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본인의 일들이 어느새 복음적인 사역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설은 평신도가 하는 모든 일 또한 거룩한 일임을 증거했다. 이것은 마치 기름과 물의 관계였던 세상일과 교회일('거룩한 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개개인의 삶을 조정하듯이,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일하는 직업은 거룩한 것이 된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목회자가 지역 교회를 섬기듯, 우리의 직장은 종교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린 거룩의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통해 바울 사도님의 삶을 엿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오로지 복음만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가 어디에서 일하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일하든,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오로지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한 인생을 바치는 모습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는지가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을 소망한다. 즉, 복음으로 쓰여진 인생 이야기가 되자는 말이다. 마치 바울 사도의 인생처럼. 그의 삶의 모습 속에는 복음이 그의 인생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으로 쓰인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삶의 모양을 따라 개인의 직업과 사역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체험해야 한다. 여기서 쉽게 직업은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는 곳이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임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인제사장설에서 말하는 것은 평신도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목회자의 거룩한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아주 무책임하게 말하면서 주어진 직장에 충성하라고 말하는데 그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평신도에게는 사업이 곧 사역이라는 말인데, 만인 제사장설은 아예 '사역'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과 사역을 그 내용에서 일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역과 사업은 그 내용상 분명 별개였다. 바울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상 둘이었던 사업과 사역이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다. 그의 사역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의 사업(Tentmaker)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과 사역은 한 목적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과 사역의 하나 됨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의 사업의 목적과 복음사역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자비량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면 된다. 선교지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은 그 사업은 복음사역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로 바울 사도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과 사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건너뛰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돈에 의해 복음사역이 좌지우지해질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 재미를 느끼며 여기저기 투자하기를 즐기고, 또한 더욱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업이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우선시될 수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대한다. 돈이 가는 곳에 사람도 간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술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그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삶은 돈이 우상이 된 삶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도 없는데, 무슨 복음 사역이나 하면서 사역을 등한시하고자 하는 유혹과 자포 자기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아내들은 이때 남편들을 도와야 한다. "여보 괜찮아. 좀 힘들어도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는 그의 남편을 분명 올바른 자리에 온전히 서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람." 하고 말하는 아내는 분명 남편으로 하여금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게 할 것은 분명하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잘 훈련된 영성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결심할 때에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편안한 삶'이다. 우리 세대는 어느덧 '편안을 좇는 세대'라 일컬을 정도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좀 더 편한 일 하기를 원하고, 좀 더 몸을 쉬게 하며, 자신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하루의 목적이다. 우리 육신이 한번 이런 삶에 적응되어버리면 다시 흠탕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육신’의 성향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허우적대다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7:24)

성경에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고전9:27)”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고후 10:5)”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갈2:20)”의 세 구절을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의 몸을 편하게 놔두라는 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우리 몸은 쉬게 할수록 더 게을러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 몸이 가진 성격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

바울 사도는 분명 본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는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힌 후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허용된 자유와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맡겨진 자신의 권리는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는 뜻으로 선포하고 있으나, 그는 그러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는 단지 육신적 정욕과 현실적 물욕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겠다는 의미를 더 뛰어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바울 사도 역시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아내를 얻고, 함께 선교하고 싶고, 사례비를 받으며 편하게 선교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왜 안 들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리로부터 자신의 몸과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 희석되어졌다. 원래의 본모습은 성경 속에 나온 제자들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시대야 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예언, 모두 다 실체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컫는 당신은 실체인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외침이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분 앞에 다가서기 위한 발버둥으로, 그 누구 이전에 제자 된 본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도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싸움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그도 자신을 향한 지침서로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었을 테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도 하나의 그의 서술 목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을 돌이켜 자신의 현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질이 어떠 한가를 되새김질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의 다짐과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므로 그의 서신서를 읽는 모든 이에게 더욱 큰 도전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 속에 솔직함과 정직함을 담아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 속에 그리스도를 향해 성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다짐과 열정도 담기 위해 노력한다.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마음을 품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스토틀 목사님은 그의 ‘극단적인 제자도(The Radical Disciple)’에서 그가 젊은 청년 그리스도 때에 고민하던 질문을 소개한다. 그의 청년 때의 고민은 이것이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어느덧 80의 노년이 되어, 그러나 영적 대가가 되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짓는다. “God wants his people to become like Christ, for Christ likeness is the will of God for the people of God.”¹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냥 광범위하고 쉬운 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나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금이 달구어져 그 순수함을 더하듯,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곧은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연구를 정리하며, 그리스도 제자의 기본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되어, 주를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영적 성숙을 경험하기를 기대해 본다.

¹¹ John R. W. Stott, *The Radical Disciples* 『극단적인 제자도』 김명희 역 (서울: IVP, 2010), 35.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Timothy Keller, *Loving the City*, ZONDERVAN, 2016.

Timothy Keller, *The Reason for God* DUTTON, 2008.

James H. Cone, *God of the Oppressed*, ORBIS, 1997.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Church*, Baker Academic, 2009.

Leonard Sweet, *AquaChurch 2.0: Plotting Your Church in Today's Fluid Culture*,

David C. Cook, 2008.

Leonard Sweet, *Rings of Fire*, NavePress 2019.

Howard Snyder, *The Community of the King*, IVP Academic, 2004.

Richard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HarperOne, 1998.

Richard Foster, *Streams of Living Water*, HaperOne, 1998.

Mark L. Strauss, *How to Read the Bible in Changing Times*, Baker Books, 2011.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Romans*, IVP 1994.

번역서적

Howard Marshall, *신약주석 사도행전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ACTS)*,

왕인승 역, 서울: CLC, 2016.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The Message of Acts)*, 정옥배 역, 서울: IVP,

1992.

- John R. W. Stott, *극단적인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s)*, 김명희 역, 서울: IVP, 2010: pg. 35
- Hendrik Kreemer, *평신도 신학 (A Theology of the Laity)*, 홍병욱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20.
- J. D. Greear,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22.
- Max Thurian, *평신도의 제자장적 역할 (Consecration of the Layman)*, 김현애 역, 서울: WPA, 2014.
- C.S. Lewis,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장경철,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18.
- Michael Horton, *세상의 포로 된 교회 (Beyond Culture Wars)*, 김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일과 영성 (Every Good Endeavor)*,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3
- Dallas Willard, *하나님의 임재 (Living in Christ's Presence)*, 윤종석 역, 서울: IVP, 2016.
- 한국어 서적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9.
- 정진호, *예수는 평신도였다*, 서울: 홍성사, 2014.
-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9.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쓰인글씨, 2007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통독원, 2017.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땅에쓰인글씨, 2016.

논문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국민일보, 2012

부록 - 사역현장기록

(1) NYU 치대 성경공부:

모임에 사용된 교재 SAMPLE: A & B

A:

디도서강해**네번째 시간:**

<나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많이 고민했어야 한 일들을 생각하고 나누어보라.

New York Style 그리스도인

자기것 위주 주의(개인주의)

겉모양 주의(허세주의)

돈이 최고 주의(금전주의)

정의:

New York Style 그리스도인: n. New York Style의 핵심은 바로 '성공'이다. 이 성공이 중요시되는 사회.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New York Style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결만 번지르한 기독교인들 - 좋은 자동차, 집, 환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들어가> 그레데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딤후 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was that you might straighten out what was left unfinished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딤후 1: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An elder must be blameless, faithful to his wife, a man whose children believe and are not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딤후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Since an overseer manages God's household, he must be blameless—not overbearing, not quick-tempered,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not pursuing dishonest gain.

(딤후 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Rather, he must be hospitable, one who loves what is good, who is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딤후 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 He must hold firmly to the trustworthy message as it has been taught, so that he can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뉴욕에서 살아남는 방법**소명(1:5)**

1. 1장 5절을 다시 읽어보고,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사명을 말해보자.

2. 당신의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3. 뉴욕과 뉴저지에서 소명을 가진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B: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1:5-9)

4. 장로(5절)는 오늘날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에 대하여...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6.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7절 참조) 오늘날 감독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가?

7. 감독이 품어야 할 삶의 모양은 어떤것이 있는가? (7-9절)

-책망할 것이 없고

NEGATIVE(7절):

-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 구타하지 아니하며
-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POSITIVE(8-9절)

-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 선행을 좋아하며
- 신중하며
- 의로우며
- 거룩하며

8.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어떤 사람인가?

9.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삶의 적용>

오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2) SOMA MISSION TEAM 현장모습 사진 기록들:

YEAR 2022 MISSION TRIP



A.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다리를 붙들고 이 환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B. 의료사역과 더불어 아이들과 Sunday School 을 협력하여 섬기는 모습.







Your time and effort placed in Come Dental
and Bo Orthodontics does not stop here.

With knowing or without knowing,
you have supported beyond the offices...



(3) COME치과 일터교회 자료 모음:

A. 연말행사에 50명의 staff님들과 그 가정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기전에 선포된 기도문 (이 가운데에는 아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심.)



End of Year Dinner Prayer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저녁 함께 일하는 우리 staffs님들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 하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일하는 COME치과와 BO
ORTHODONTICS 이 두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항상 주님이 쓰시는 기업 되게
하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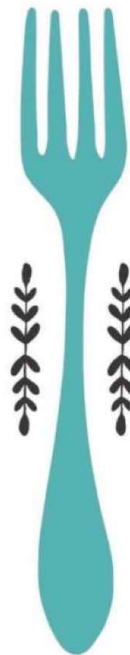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곧 다가오는 CHRISTMAS의 주인도 주님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땅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저희가 이번 Christmas 에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세요.

함께 일할수있는 장소와 동역자와 team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음식감사드리고 Christmas에
주인되신 예수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Dinner PRAYER

Dear Beloved God
Tonight, here I am with all of my staffs to
celebrate and spend time together as the
year is coming to an end.

We want to begin by proclaiming that you
are the Lord over both businesses in
which we work at--Come Dental and Bo
Orthodontics. Would you always use both
offices for your purpose

And we also declare tonight that you are
our lord, one who has control over our
lives. Would you help and guide us to
discover the true purpose of our lives and
how we ought to live...

Jesus, You are also Lord over this coming
Christmas season so would you remind us
of Jesus Christ's heart and his purpose in
coming down onto this earth ...

We thank you once again for our
workplace, coworkers, and team that you
have blessed us with...and thank you for
the food you have provided tonight. We
have prayed this a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Lord over this Christmas
season.

A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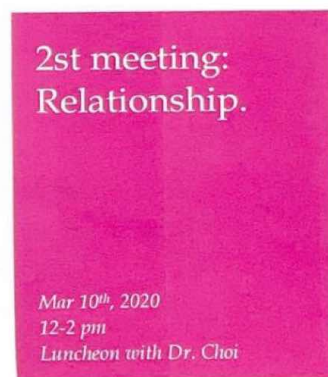
2

“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 함께 일하는 우리 Staffs님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일하는 COME치과와 BO
ORHODONTICS, 이 두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항상 주님이 쓰시는
기업 되게 하여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곧 다가오는 CHRISTMAS의 주인도 주님 되신 예수님 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목적을 저희가 이번 CHRISTMAS에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세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와 동역자와 TEAM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음식 감사드리고,
CHRISTMAS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 “

B. 한달에 한번 수요일 점심을 2시간으로 늘려서 세미나 형식으로 삶의 주제를 강사를 초청하여 함께 나누고 토론한다. (주제 - 관계, 나의 소명, My career, etc.) - 이때 쓰인 교재.

TODAY's Notes:



C. 정기 토요일 모임: 토요일 일이 끝나면 모든 일터의 스테프님들은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찬양,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양육을 한다. (사용된 교재)

일터사역:

<나눔> 지난 한주 나의 삶을 돌이켜 보고 기억에 남는일, 또는 많이 고민했어야 한 일들을 생각하고 나누어보라.

<말씀으로 들어가> THE SEARCH FOR THE MARKS OF JESUS IN WORSHIP AT THE WORKPLACE

(1) 요한복음 4:19-26 (John 4:19-26)

-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르소서이다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Our ancesto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Woman," Jesus replied, "believe me,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이라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Then Jesus declared, "I, the one speaking to you-I am he."

(2) 로마서 12:1-2 (Romans 12:1-2)

-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더 깊이 묵상하기] THE SEARCH FOR THE MARKS OF JESUS IN WORSHIP AT THE WORKPLACE

1.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 (worship)은 어떤것인가?
2. 요한복음 4:19-26 을 읽고,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3. 우물가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19 절) 당신에게 예수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1-5-9)

4. 장로(5절)는 오늘날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5.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모양이 어떠한가 한다고 6절에서 말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에 대하여...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6.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7절 참조) 오늘날 감독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가?

7. 감독이 품어야 할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는가? (7-9절)

-책망할 것이 없고

NEGATIVE(7절):

-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 구타하지 아니하며
-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POSITIVE(8-9절)

-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 선행을 좋아하며
- 신중하며
- 의로우며
- 거룩하며

8.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어떤 사람인가?

9.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삶의 적용>

오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ung Joon Yun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pril 25, 1976

Parent's Name: Dal Ho Yun/ Jin Kyung Yun

EDUCATION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WARREN HIGH SCHOOL 8141 De Palma St. Downey, CA 90241	Diploma	May 15, 1994
Collegiate: UC BERKELEY UNIVERSITY 127 Sproul Hall Berkeley, CA 94720	B.A.	Aug 14, 1998
Graduat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64 Mercer St. Princeton, NJ 08542	M.A.	May 13, 2006
Graduate: NYACK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2 Washington St. New York, NY 10004	M.Div	Sep 2, 2019
Graduate: NEW YORK UNIVERSITY (NYU) COLLEGE OF DENTISTRY 345 E 24 th St. New York, NY 10010	Doctor (DDS)	May 16,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ung J. Yun

Name typed

March 12, 2023

Date